

절대 고요 속에서 빛나는 가르침의 정수



9 통도사(상), 종갓집의 그윽한 매화 향기

국지대찰(國之大刹) 불지종가(佛之宗家)

영축산 통도사(通度寺)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명료한 말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 안의 큰절이요 불교의 종갓집'이라는 명명(命名)이 아니고는 통도사를 설명할 길이 없었기에 일주문에 무궁한 기상을 뽐내는데 서체의 주연을 당당하게 달았을 겁니다.

매포소를 지나 주차장 건너 근래에 세운 일주문이 '영축총림'이라는 현판을 달고 우람하게 서 있지만, 단호한 휘호의 주연을 달고 있는 옛 일주문 앞에서 슬며시 웃음을 머미게 됩니다. 바삭 전지(剪枝)가 된 가지에서 뽀얀 웃음으로 피어난 매화 향기가 코끝을 맴 돌립니다. 종갓집을 찾아 드는 나그네는 뉘가 모를 경건함에 긴장이 되는 잠인데, 진한 듯 얼은 듯 코끝을 간질이는 매화향기에 마음이 환해집니다.

새로 세운 일주문 오른쪽에 웅장하게 펼쳐진 비림(碑林)이 눈에 들어 왔지만 그냥 지나칩니다. 통도사를 찾아 온 이상, 어떤 일도 금강계단(金剛戒壇)에 참배하는 것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도발 기행을 나선 나그네가 부처님의 부도탑이 모셔진 금강계단 참배를 뒤로 미루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문 위쪽에 가로 걸린 '영축산통도사(靈窟山通度寺)'라는 선이 굵은 글씨는 흥선 대원군의 솜씨입니다. 황금 빛 현판을 올려다보다가 문득 우스개 소리 한토막이 생각납니다. 통도사의 도(境)라는 법, 법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해아리라는 의미로 쓸 때는 '탁'으로도 읽습니다. 어느 날 한 선비가 일주문 앞에 서서 "통탁사라, 거 글씨 한판 시원스럽게 잘 썼구나" 하고 큰 소리로 식견을 자랑했다는 얘깁니다. 불교에서는 '도'로 읽는 경우가 많고 유교의 경전에서는 '탁'으로 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과 불이문을 지나 공작 계단으로 갑니다. 대웅전에 들어가 삼배를 할 것도 없이 말입니다. 계단 정면에 서서 허리를 깊게 구부러 삼배를 올리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너그러운 웃음으로 인사를 받아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자 그 제자들은 스승의 유해(遺骸)로 7일 만에 법체를 화장(火葬)했습니다. 부처님의 사리(舍利 유물)는 마가다국과 바이살리의 리차비족, 카필라바스투의 사가족 등 8종족들이 나눠 갖고 각각 탑을 세워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고 살아계시는 스승을 모시듯 했습니다.

거대한 불탑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물과 권력 노동력 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했으므로 불탑 하나가 세워지기까지는 건립의 주재자를 중심으로 많은 대중의 율력과 시주가 필요했을 겁니다.



신라 자장 율사가 통도사를 창건할 때 쌓았다는 금강계단. 현재의 모습은 18세기에 중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장 율사 금강계단 설치, 진신사리 모셔

시대 이어오며 가꿔진 성보... 지계의지 다지는 불보종찰의 핵심

석문 신장상 등 근엄함 속 아름다움에 숙연

그 자체로 하나의 신앙적 상징이 된 불탑은 부처님의 몸과도 같이 숭상됐고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조각과 부조물 등으로 탑을 장엄했으니 불교미술의 시원도 불탑이었을 겁니다. 초기 불교에 있어 불탑은 부처님의 법신(法身)은 물론 위대한 가르침을 상징하며 중생에게는 귀의의 대상이고 승단에는 지엄한 계율과 수행의 지표였던 것입니다. 통도사 금강계단도 그와 같습니다. 절이 창건된 때부터 계단이 있었고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관(金冠)이 모셔졌으니 이 도량이야말로 부처님의 법이 상주하는 도량인 것입니다. 오늘날 3보(三寶) 사찰을 일컫을 때 통도사를 불보(佛寶) 사찰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금강계단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라 선덕여왕 15년(646)에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慈藏律師 생몰미상)는 당대에 가장 존경받았던 율사입니다. 왕이 국사로 임명하려 하자 거둬 버렸습다. "취임하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고 엄포를 놓자 "나는 차라리 단 하루를 계를 지키다가 죽을

지언정, 파계를 하고 백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왕은 이 단호한 율사를 더 이상 중용하지 않았습다.

자장 율사는 636년에 칙명을 받고 당나라로 구법을 떠났습니다. '통도사사리(가사적약록)'에는 자장 율사가 통도사를 건립하기까지의 과정이 잘 소개돼 있습니다. 즉, 당나라에 도달한 자장 율사는 종남산 운제사(雲際寺) 문수보살상 앞에서 지극하게 기도를 드리고 마침내 화현으로 나타난 문수보살을 친견합니다. 문수보살은 가사 한 벌과 진신사리 100과(顆), 불두골(佛頭骨)과 손가락 뼈, 염주, 경전 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촉했습니다.

"그대는 말세에 계율을 지키는 사문이 될 것이므로 내가 이것을 그대에게 주노라. 그대의 나라 남쪽 취서산(鷲西山, 영축산의 옛 이름) 기슭에 독룡이 사는 곳이 있는데, 그 용이 사는 연못에 금강계단을 쌓고 이 불사리와 가사를 봉안하면 재앙을 면하게 돼 만대에 이르도록 멀하지 않고 불법이 오랫동안 머물러 천룡이 그곳을 응호하게 되리라."

귀국한 자장 율사는 왕과 함께 취서산 남쪽의 용이 사는 연못을 찾아 매우고 계단을 쌓았으니 그 자리가 지금의 통도사 자리라는 것입니다. 대웅전 옆의 구룡지와 주변의 마을 이름(구룡동 삼곡동 등)에도 이 이야기를 증명해 주는 설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강계단은 자장 율사의 시대 이래로 매우 성스러운 영역으로 보호되고 섬겨져 왔습다. 현재의 모습은 18세기 이전에 중수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습다. 합창한 채 금강계단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며 불교의 역사, 불법(佛法)의 전승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고한 원력이 심어지고 시대를 이어가며 그 원력을 성취해 나가는 깊은 믿음의 결정체로 하나의 보배가 맺히지는 것 말입니다. 통도사 금강계단의 우뚝한 존재야말로 수행의 기틀이 되는 계율의 지엄하고 존귀함을 만대에 설해주는 무언의 설법이 아닐 수 없습다.

금강계단이 위대한 것은, 부처님의 가사와 진신사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눈에 보이는 인연이 아니라 진정 부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계와 율에 의지해 청정한 수행을 하도록 발심시켜 주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에서 구족계를 설하고 출가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재가자 역시 이 계단에 예배를 하는 동안 삼귀의와 오계를 벗어나지 않으리라 다짐을 새웁게 합니다.

금강계단은 아름답습다. 시대를 이어가며 다듬고 가꾸어 온 계단의 화려한 석문(石門) 앞에 서면 영혼을 씻어 그 문 안으로 들여보내고 싶은 충동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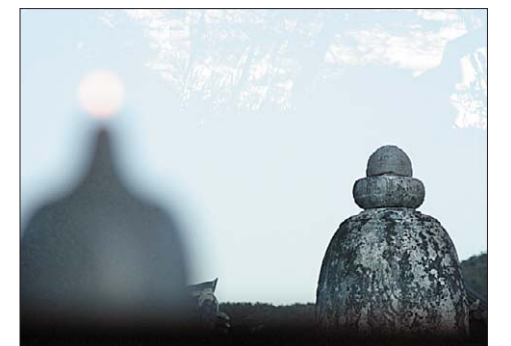
어납니다. 잡스러운 것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세워 둔 신장상이나 곁을 두고 조성한 난간들에는 근엄한 기운이 흐르고 단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석종은 지상에 단 한 송이 밖에 없는 꽃입니다. 그 꽃향기는 절을 가리지 않고 중생계를 향해 흩뿌려지고 그 단아한 자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무한한 발심을 하게 합니다. 금강계단은 닦고 또 닦아 반드시 성불 하리라는 대원력을 심어주는 자비의 공간입니다.

금강계단과 함께 국보 제290호인 대웅전은 방향에 따라 다른 이름의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금강계단 쪽에서 보면 '적멸보궁(寂滅寶宮)'입니다. 사리는 적멸의 상징입니다. 모든 번뇌를 끊어 버리고 절대고요 속으로 들어간 수행자가 세상을 향해 남겨 둔 마지막 법문의 결정(結晶)이 사리입니다. 우리나라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이 다섯 곳이나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당연히 통도사도 그 가운데 하나이며 그 중심이 금강계단입니다.

산 그림자가 계단을 덮을 무렵 키가 훤히 훑힌 스님 한 분이 계단으로 들어와 허리를 숙이고 사방에 세워진 석등마다 불을 밝힙니다. 석등의 화장은 유리 막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호롱이 들어 있어 거기 아롱아롱 불이 켜집니다. 호롱불 넘어 석종의 윗부분이 보입니다. 거기서도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대웅전 주연에 적혀 있는 자장 율사의 '불탑계(佛塔階)'를 읽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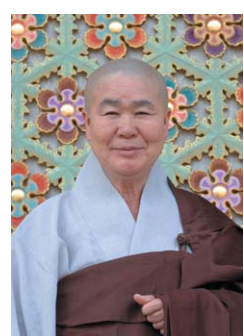
만대의 전륜왕 상계의 주인 성림에 열반하신 뒤 몇 천추던가 진신사리 오히려 지금도 있으니 널리 중생의 예불 쉬지 않게 하리.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날이 저물자 호롱불을 밝힌 금강계단. 호롱불 넘어 석종이 보인다.

■ 기본참고자료 <역대고승비문>서리즈, 이자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도> 정영호, 대원사.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엄기표, 학연문화사. <전통사찰서사> 사찰문화연구원.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답사팀, 돌베개. <통사열전> 김운세 역, 광재원. <잊혀진 가람탐험> 장지현, 역시이문, 등.



인간과 자연을 생각합니다.

순수 자연주의를 표방한 자연친화적인 바디케어 제품 "아름다운 인연 굵단이" 출시 -

심청골 무각사 주지스님이 제안하는 '아름다운 인연' -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며 보급합니다. -

굵단이(音)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한국의 여인 '굵단이' 전남 곡성군 무각사 주지 성효스님은 출가 후 부처님 인연으로 순수 자연성분의 목욕용품(헤어 샴푸, 바디샴푸 등)에 석유화학 첨가물인 계면활성제(SLS, SLES, ALS, ALSE)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계면활성제는 우리 피부에 뱀뱀함과 노화를 촉진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임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순수 자연성분인 아자유와 콜라겐 펩타이드, 아미노산으로 제조된 굵단이의 세정제품은 죽어가는 세포를 생분해시켜 다시 재생하는 유일한 세정제품입니다. 부처님은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다' 고 설하셨습다. 성효스님은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염원하고 불철주야 기도 정진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모든 불자들이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스님의 마지막 희망 발원입니다. 이를 위해 성효스님은 순수 자연성분 세정제품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하고자 석유화학 첨가물 계면활성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좋은제품을 만들어 목욕용품 전문업체 '아름다운 인연-굵단이' 를 설립, 불자들에게 권합니다.

[곡성 무각사 주지 성효 스님 합장]

SLS와 SLES는 샴푸나 목욕용품에 널리 쓰이는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로 아토피염을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와 SLES에서는 심한 피부병 증상이 일어났다. (중략) - 연합뉴스 08.4.24 -

http://www.gobdane.com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제품 설명과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굵 단 이 를 검색하세요



판매원 : 아름다운인연-굵단이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309) 소비자 상담실: 080-363-8985 제조원 : (주)푸티모



아름다운 인연-굵단이는 친환경을 추구합니다. 굵단이의 모든제품에는 석유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SLS, SLES, ALS, ALES (석유화학 첨가물) 등의 일반적인 계면활성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정제 주원료 100% 아자유와 콜라겐 펩타이드&아미노산을 사용합니다.

- ◆ 굵단이 나노 콜라겐 아자유 트리트먼트 헤어 샴푸
- ◆ 굵단이 나노 콜라겐 아자유 젤 바디 샴푸 (건성 피부용/지성 피부용)
- ◆ 굵단이 나노 콜라겐 아자유 젤 클렌징 (황토 / 녹차)
- ◆ 굵단이 피부 컨트롤 나노 콜라겐 스킨 (모든 피부용)
- ◆ 굵단이 나노 콜라겐 파우더 로션
- ◆ 굵단이 나노 콜라겐 아자유 헤어 트리트먼트
- ◆ 굵단이 먹는 콜라겐 & 글루코사민



Nano Cocoyl Collagen & Amino acid Care